



이사야(남서울대)

1. 들어가는 말

구약학에서 רוּחַ (루아흐)와 성령론은 다른 신학적 주제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것이 사실이다. 구약성서학자인 블락(D.I. Block)이 “성령론이란 본질적으로 신약성서의 교리”라고 단언했을 정도로,²⁾ 구약성서에서 성령론이 별로 주목을 끌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우리 입과 귀에 익숙한 성령(론)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구약성서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구약성서에 등장하

* 이 논문은 2016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1) 한국구약학회 제102차 추계학술대회(2016.9.23.) 주제연구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하였음.
- 2) D. I. Block, "The Prophet of the Spirit: The Use of RWH in the Book of Ezekiel", *JETS* 32:1 (1989), 27.

www.kci.go.kr

는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시편 51편 13절(개역-11절), 이사야 63장 10절, 11절 뿐이다. 힐데브란트(W. Hildebrandt)는 이 루아흐의 기원에 대한 연구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대 근동에서 영(spirit)이라는 개념의 기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마치 우주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복잡한 일이 구약에서 제시하는 이스라엘의 성령론에 대한 배경 추적이다.³⁾

한국에서도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다른 주제들에 비해 루아흐에 대한 연구가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한국구약학회에서 구약의 영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⁴⁾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389회의 루아흐 중 하나님의 영과 힘이라는 의미를 지닌 루아흐는 신인식론적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예언서에서 모두 65회 언급되는 신인식론적 영 본문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포로기와 그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모스,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 스바냐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호세아와 미가도 심판맥락 속에서 각각 1회(호 9:7)와 2회(미 2:7; 3:8) 사용하였을 뿐, 주전 8-7세기의 예언자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아예 침묵한다. 반면 제2,3이사야와 에스겔, 요엘, 학개, 스

3) W. Hildebrandt,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5), 27.

4) 차준희는 구약에 나타나는 창조적 영이 말씀의 동역자이고, 지속적인 생명의 창조자이자 회복자임을 밝혔고(차준희, "구약에 나타난 창조적 영", 『구약논단』 55집 [2015], 185-211), 한사무엘은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아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동일시하는 일반적인 해석을 반박하고 있다(한사무엘, "사무엘서에 나타난 아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의미", 『구약논단』 61집 [2016], 137-163). 천사무엘은 구약 뿐 아니라 외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 개념을 밝히고 있으며(천사무엘, "구약성서와 하나님의 영", 『제102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6], 207-216), 한동구는 하나님의 영이 포로기 이후에 인격성을 지닌 존재론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한동구, "구약성서의 성령론: 하나님의 영의 존재론적 성격의 변화", 『제102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6], 13-24).

가라, 말라기 등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에 집중되어 있고,⁵⁾ 제1이사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 본문들(사 11:1-5; 28:5-6; 30:1-5; 32:15-20; 34:16-17)도 대부분 그 연대가 제2, 3이사야 시대의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다.⁶⁾

본 논문은 구약의 예언서, 특히 루아흐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제2,3이사야와 에스겔의 영 본문들을 주석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신학적 특징들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루아흐가 구약성서의 또 다른 신학적 중심어라는 사실을 주목함과 동시에 구약의 영과 영성, 성령론에 대한 빈곤한 연구 건축에 돌 하나를 얹고자 한다.

2. 예언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

1) 창조와 새 창조, 회복

1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 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3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사 44:1-3)

5) 사 4:4(2회); 11:2(4회),4; 28:6; 29:10; 30:1; 31:3; 32:15; 34:16; 37:7; 40:7,13; 42:1,5; 44:3; 48:16; 59:19,21; 61:1; 63:10,11,14; 겔 1:12,20(3회),21:2; 3:12,14(2회),24; 8:3; 10:17; 11:1,5(2회),19,24(2회); 36:26,27; 37:1,5,6,8,9(3회),10,14; 39:29; 43:5; 호 9:7; 율 3:1,2; 미 2:7; 3:8; 학 2:5; 슥 4:6; 7:12; 12:10; 말 2:15(2회). 하지만 신명 야웨나 엘로힘이 붙여있는 형식이 모두 신인식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루아흐의 쓰임새는 하나님의 영과 힘 외에도 자연의 바람, 방향, 인간의 마음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에서 성육에 찬 들나귀의 힘땀거림에 사용된 용어도 루아흐이다(렘 2:24; 14:6).

6) 이사야, “야웨 임재의 상징과 영”, 『구약논단』 30집 (2008), 187-188.

이사야 44장 1-3절은 새로운 중, 야곱/이스라엘에게 뜻밖의 축복을 약속한다. 황폐하고 소망이 없는 마른 땅, 이스라엘에게 제2의 출애굽까지도 암시되고 있다.⁷⁾ 하나님의 영광 복이 평행을 이루면서 야곱/이스라엘의 후손에게 부여진다. 신실한 중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야곱(사 43:22-28)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구원 말씀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불순종의 결과를 짚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격려하고 확신을 준다. 야곱을 ‘나의 중’, ‘나의 택한 여수룬’⁸⁾으로 부르는 표현은 회복을 위한 근거로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의지와 행동을 보여준다. 여기서 이사야는 אָשַׁר(아사/만들고)와 אָצַר(아차르/지어 낸)라는 창조 용어를 사용한다. 창세기 2장 3절과 7절에서 사용된 두 단어를 통해 아웨의 중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창조행위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⁹⁾ 제2이사야에서 동사 אָצַר를 사용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포로 공동체에게 구원에 대한 큰 희망이다.¹⁰⁾ 더 나아가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이라면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생명을 부여하는 영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개종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의 보편적인 사역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7) J. Smart, *History and Theology in Second Isaiah: A Commentary on Isaiah 35, 40-66* (Philadelphia: Westminster, 1965), 110; P. D. Hanson, *Isaiah 40-66,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5), 82-83; Ma Wonsuk, *The Spirit of God in the Book of Isaiah & its Eschatological Significance* (US: UMI, 1996), 188에서 중인.

8) 여수룬은 야곱/이스라엘을 시적으로 높여 부르는 이름이다(신 32:15; 33:5,26). 통상적으로 ‘속이는 자’라는 뜻을 지닌 야곱과는 달리 ‘정직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독일성서공회판 성경전서 본문 해설).

9)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אָשַׁר) 모든 일을 마치시고(창 2:3),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אָצַר)(창 2:7)

10) 제2이사야는 ‘창조하다’ 혹은 ‘만들다’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אָשַׁר(파알, 사 45:11), אָצַר(아사, 사 40:23; 44:17; 54:5 등), אָצַר(아차르, 사 44:10,21; 45:18; 54:17 등), אָבַר(바라, 사 40:26; 41:20; 45:18; 54:16 등) 동사를 많이 사용하며, 이것은 제2이사야의 문학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김지은, 「포로와 토지소유」(서울: 한울출판사, 2005), 132.

물과 영 사이의 중요한 상징적 역할은 생명을 준다는 차원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목마른 자에게 주는 물과 마른 땅에 흐르는 시내처럼 백성에게 주어진다. 바삭 말라버린 땅에 비가 내려 풀이 자라듯,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영이 말라버린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창조의 힘을 부여한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는 비를 갈망한 것처럼, 장차 도래할 메시아시대의 정결과 갱신, 영적 복, 회복을 가져올 것처럼 내리는 영을 소망했다.¹¹⁾ 물과 영은 흔히 갱신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종말론적인 이미지들로 볼 수 있다(사 32:15; 42:5; 57:16; 욥 27:3; 34:1; 시 104:30; 146:4; 슥 12:1,10; 겔 37 등). 이와 같은 이미지는 에스겔 37장에서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겔 37:14)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은 절망적인 탄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표현하고 있다. 마른 뼈 환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은 재창조적인(re-creative) 역사와 상관되어 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루아흐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대비 시킴과 동시에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¹²⁾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 부음을 통해 회복되어 이스라엘 고토

11) W. Hildebrandt, *유클*, 66.

12) 이학재,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300-301.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단어인 '뼈들'이 10번이나 사용되었고(1,3,4a,4b,5,7a,7b,7c,11a,11b), '무덤'이라는 말도 4번이나 사용되었다. (12a,12b,13a,13b). 그리고 '살린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되었는데(5,6,9b,10,14a) 이 단어는 루아흐와 연결되는 문장의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적인 단어를 통해 루아흐의 사역을 극대화시키고, 루아흐의 살리는 영의 역할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한다. Lee Hakjae, *A Rhetorical and Theological*

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선포된 생기(9절)는 단순히 죽은 자의 소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영을 부으시겠노라고 선포하신다. 이러한 선포는 환상에서 본 마른 뼈들에게 영이 공급되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을 부으셔서 민족의 회복을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선포이다. 에스겔 36장 26-27절을 반복하는 14절은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줄 뿐 아니라, 민족을 새롭게 하는 영의 부음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서 민족 전체의 내적 갱신까지를 지시한다. 이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보증하신다. 회복과 새로운 창조의 의미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속을 가능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로생활은 실제로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포로생활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흙덩이의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셨던 그 호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다. 바로 새로운 창조의 영을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어 에스겔 37장 15-18절에서 에스겔은 처음으로 정치적 의미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언급한다. 통합된 한 나라로서의 회복, 곧 이상적인 왕국으로의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정착시키고,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은 단순한 이념적 선언이 아니다. 에스겔은 앗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흩어져 지내고 있는 남북왕국의 포로민들

Interpretation of **רוּחַ** *in Ezekiel 37:1-14* (US: The University of Stellenbosch, 1999), 179-183.

에게 땅으로의 귀환 약속을 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땅과 민족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편집자의 이상적인 회복표현이다.¹³⁾

2) 하나님의 이름, 영광 그리고 말씀

19서쪽에서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²¹...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사 59:19-21)

이사야 59장 19-21절은 하나님의 영광 이름, 영광이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사야와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 야웨를 표시한다.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이 다시 시온과 야곱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을 소망/확신하면서 신명기사가와 제사장적 자료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임재의 표현들로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임재의 표현으로 모두 사용하는데 반해 예루살렘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용하고 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잠시 그의 백성을 떠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백성의 우상숭배로 이미 더럽혀졌고, 이전의 성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13) 김지은, 율, 173-174.

14) 이사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 그리고 종교양태의 변화", 『기독교사회윤리』 28집 (2014), 188.

22...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23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겔 36:22-23)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호와와 땅'에서 쫓아낸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겔 35:10). 에스겔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곳이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로 인해 이미 실패한 곳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쫓아내어 그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 받고 더럽혀진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오고, 포로된 유다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옴으로써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이었다.¹⁵⁾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합도 주목된다.¹⁶⁾ 하나님은 '그들' 즉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와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언약의 중심 내용은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토록 지속되리라는 데에 있다.¹⁷⁾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함께 작용하여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경험 속에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성취될 것을 확인한다(사 42:6; 49:8; 54:10; 55:3; 61:8 참조). 예언과 하나님의 영광의 밀접한 관련은 포로기 말기부터 시작되어 포로기 이후에 와서는 서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되었다.¹⁸⁾ 성전 제의가 부재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15) 이샤야, 윗글(2014), 175.

16) 몬태그(G. T. Montague)는 이샤야 59장 21절에서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서 영원히 존속할 것을 확증한다고 주장한다. G. T. Montague, *The Holy Spirit: Growth of a Biblical Tradition* (New York: Paulist, 1976), 60, 135.

17) 김정우, "이샤야서의 성령론", 『신학지남』 262호 (2000), 137.

18) 차준희, "예언과 영: '문서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5집

중요성을 더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하나님의 선택의 상징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근거가 됨을 말하는 구절은 이 외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을 받은 다윗의 예언자적 외침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삼하 23:2). 흥미롭게도 포로기 이후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닌 전체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특정 왕을 비롯한 개인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백성을 향하고 있다. 베커(J. Becker)는 예언의 말씀이 전체 민족에게 전이되는 현상은 왕권이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이됨으로 비유된다고 주장한다.¹⁹⁾ 다가오는 구원의 세대에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지고, 언약의 약속들이 세대에서 세대를 걸쳐 하나님 백성들의 경험 가운데 성취되리라는 것이다.

3) 영 부음과 기름 부음

1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3...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사 61:1-3)

이사야 61장 1-3절에서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의 축복이 기름 부음을 받은 야웨의 종의 사역을 통해 희년이 회복되리라는 것으로 예언되고 있다.²⁰⁾ 여기에서 전통적인 기름부음 사상과 하나님의 영광의

(1998), 78-79 참조.

19) J. Becker, *Messianic Expect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51, 68-69.

20) 김정우, *율골*, 141.

통합적인 관계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름붓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의 지도자들은 기름부음을 통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는 사실을 공포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을 택할 때나 다윗을 택할 때에도 기름을 부었다(삼상 10: 1-13; 삼상 16:12-13; 삼하 23:1-7). 그러나 포로기 이후의 많은 본문들은 전통적인 양식인 기름부음 대신 영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드러내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이전의 기름부음 양식을 대신하여 또 다른 하나님 임재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²¹⁾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에 나타나는 영 부음이 전통적인 기름부음 양식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대한 기대를 담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이다(욥 2:28-29[MT 3:1-2] 참조).

사사나 왕 같은 특정 사람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어, 다른 사람의 매개나 해석 없이도 모든 백성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 바이저(A. Weiser)는 이를 곧 모든 백성이 영을 받아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모세의 소망(민 11:29)의 성취로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예언자는 필요없게 된다고 주장한다.²²⁾ 모든 백성에게 부여될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의 이미지, 즉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된다(사 63:14). 심판의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영광스런 모습의 회복과 성취에 대한 희망은 아직도 희미하기만 한 가운데, 이사야는 낙심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처

21) 이사야, 윗글(2008), 193-194.

22) 바이저, A./엘리거, K., 『호세아/요엘/아모스/즈가리아』국제성서주석 25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2), 195. 원제는 Weiser, Artur/Elliger, Karl, Hosea Joel Amos Sacharja(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85).

럼 이끌어 가시리라는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이다.²³⁾

하나님의 영은 전체 백성 뿐 아니라 야웨의 종에게도 임한다. 이사야 42장 1-4절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 이방과 세상에 공의를 베풀 것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강조되는 공의의 실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수행되는 포로기 이후의 보편주의적 경향을 드러낸다. 이 사야는 종의 정체에 대한 관심보다²⁴⁾, 하나님의 영이 그 종을 고무하여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공의를 맺게 하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1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³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 ⁴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사 42:1-4)

하나님이 택한 종은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자로 나타난다. 이사야서의 영 본문들에서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는 것은 대부분 미래형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기에서 종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과거형으로 나타나며, 계속적으로 누릴 것이 강조된다.²⁵⁾ 니브(L. Neve)는 본문이 하나님의 영의 카리스마적 사역의 연속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²⁶⁾

23) R. J. Sklba, "Until the Spirit from on High is poured out on Us" (Isa32:15): Reflections on the Role of the Spirit in the Exil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6 (1984), 13; W. Hildebrandt, *윌클*, 94에서 중인.

24) 이 본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둠(B. Duhm)이 이 본문을 독립된 네 개의 종의 노래(사 42:1-9; 49:1-13; 50:1-11; 52:13-53:12) 중 첫 번째 것으로 분류한 이후, 주로 종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B. Duhm, *Das Buch Jesaja, Übersetz und erklärt*, HKAT 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2) 참조.

25) 김정우, *윌클*, 140.

26) L. Neve,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okyo: Seibunsha, 1972), 84. 헨슨은 이 루아흐를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힘과 지혜'라고 규정한다. P. D. Hanson, *윌클*, 77. 하지만

하지만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은 영 임재의 증명수단으로서 초인간적인 혹은 영웅적인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지만, 여기서의 종은 아무런 영웅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던 카리스마적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 자신에 의해 종이 직접 소개된다. 종으로 하여금 소외받는 자와 민족들, 심지어 섬들에게까지, 이방과 세상에 공의를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미래의 긴 고난 중에서 종을 지지하고 그로 하여금 영속적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다.

4) 내면적, 윤리적 변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겔 11:19)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찌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겔 18:31)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영 본문들은, 특히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포로기 이후의 종교적 양태의 변화를 잘 드러낸다. 하나님은 새 언약과 같은 회복의 말씀을 마음에 이식하여 사람을 새롭게 한다. 이러한 새로운 언약과 내면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말씀을 좇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²⁷⁾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사람의 내면적, 윤리적 변화는 역사서에 나타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다. 블락은 에스겔 11장 19절은 그 기본이 신명기 30장 6절의 ‘마음에 베푸는 할례’에 있는 약

월슨은 이를 ‘하나님의 예언자적 영’으로 분류한다. A. Wilson, *The Nations in Deutero-isaiah: A Study of Composition and Structure* (Lewiston: Edwin Mellen, 1986), 55.

27) 이학재, *웃음*, 100.

속이라고 주장한다. 신명기의 ‘마음의 할례’가 ‘굳은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좇는 마음 대신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촉구하고 있다.²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준 영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만(겔 11:19), 이스라엘은 또한 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겔 18:31). 이는 집단적인 종교생활에 대한 책임보다는 개별적인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포로기 이후 성전이 존재하지 않던 때에 신앙과 종교생활의 책임이 더 이상 집단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각 개인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중심에서 역사하시며 또한 그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결국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 ‘새 영’이 주어지는 목적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데 있었다(겔 11:20).

역사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은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에스겔을 비롯한 예언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은 정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이 새 시대에 그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영이 어느 특정 개인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여서 내적인 개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의 모습이다. 돌같이 굳은 옛 본성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윤리적으로 심화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고 행하게 되리라는 점에서 분명해 진다.

2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신 30:6).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7), 353.

26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²⁹⁾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6-27)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에스겔 36장의 이 약속은 예레미야 31장 31-34절과 일치한다.³⁰⁾ 여기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종말론적인 약속을 가장 원숙하게 발전시킨다. 하나님은 이제 ‘새 영’을 사람의 내부에 넣어 주신다. 25절은 이러한 갱신사건의 첫 번째 행위로,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케 될 것을 촉구하고, 26절은 갱신의 두 번째 행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공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것이다. 이는 백성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마음의 할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이자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다. 백성들의 존재를 윤리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간헐적인 활동보다는 인간 내면에서 영속적으로 활동하는 능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 대해 영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사람이 총체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신명기 30장 6-8절에서 보여주는 마음의 할례라는 방법으로 정결하여 질 수 없어서, 하나님은 좀 더 극단적인 방법, 즉 ‘새 마음’과 ‘새 루아흐’를 공급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이다.³¹⁾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

29) 개역성경은 26절의 번역순서를 MT와 달리하고 있다. MT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보다 뒤에 나온다. 아마도 이는 뒤이어 나오는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때문인 듯하지만, 27절에서 “새 영”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MT의 순서대로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나은 듯하다.

30) 블락은 구조의 유사성을 들며 에스겔이 예레미야에게서 받은 영향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D. I. Block, *유태(1989)*, 9.

31) D.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Grand Rapids: W.B.Eerdmans, 1998), 355.

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의지의 중심부를 심어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겔 11:19).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황폐해진 도시와 성읍들이 새로 건축되며, 황무지가 에덴동산으로 변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영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고대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영의 임재를 통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된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계약을 감당하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았다.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암울한 현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떠남으로 인해 종국을 맞이하게 된 정황 속에서 본문은 포로민들에게 회망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선언이다(겔 11:19; 18:31; 37:14 참조).³²⁾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그들을 홀으시고 징벌하셨으나, 포로민들의 상황 때문에 열방 중에서 더럽혀진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의 청사진에 앞서 마지막 날에 마곡의 왕곡과의 우주적인 싸움을 묘사하고, 그 싸움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세워질 것을 말한다(겔 39:21).

포로기 이후의 내면적인 변화에 대한 강조는 야웨 신앙의 활력을 위한 공동체 사상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사상에 깊이 연관되어 있던 야웨 신앙이 바벨론 포로생활이라는 사건에 의해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야웨 신앙으로 뭉쳐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속 내지는 새로운 형성을 위하여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스라엘을 외적 공동체가 아니라 내면적 공동체

32) W. Hildebrandt, *율골*, 94-95.

로 이어지게 만들었다.³³⁾ 사람이 변화한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든지(겔 39:29)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영을 인간의 내면에 두어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연한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든지(겔 11:19; 36:26), 외부에서 역사하는 권능에서 개개인의 삶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그 활동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할 것이다. 개인주의 및 내적인 생활에 대한 강조는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종교적 양태의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변화이다. 보편주의가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다면, 개인주의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에서 개인중심으로의 변화라는 종교적 양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개인적, 윤리적, 내적 변화를 강조한다. 이는 포로기 이후의 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행되어지던 공적인 제의의 파괴로 인해, 사적인 예배자의 내적 생활의 발전을 더욱 강조하게끔 된 것이다.³⁴⁾

5) 하나님의 영광 성전 재건

2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⁵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겔 43:2-5)

에스겔 43장 1-12절은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설명한다. 예루살렘 제사장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전 안뜰로 옮겨지는데,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운다(겔 43:5). 이는 성전의 파

33) L. Neve, 윗글, 173 참조.

34) L. Neve, 윗글, 59-61.

괴 이후 다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로 회복됨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법궤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대하다. 이 시대에 법궤는 이스라엘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절대적인 요소로 나타난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앙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이다.³⁵⁾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법궤가 안치된 성전의 파괴는 단순히 전쟁의 패배로 인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인 퇴폐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결국 성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이다(겔 10:3-9).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에게 거룩한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작용할 새로운 성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학개 역시 하나님의 영을 통한 성전 회복을 소망하면서 무너진 성전의 회복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학 2:5-9).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아위의 귀환이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백성 전체에게 보여주며, 새로 재건되는 성전이 열국의 심판자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처소임을 선포하는 것이다.³⁶⁾

성전의 재건은 포로기를 경험한(하는) 이들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이었다. 포로기의 에스겔이나 포로후기의 학개에게 있어서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포로기와 함께 바벨론으로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징표였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에스겔과 학개의 선포는 포

35) 이사야, "사사시대와 사사기의 하나님 임재 상징", 『종교연구』58집 (2010), 293.

36) 김지은, 『뫼글』(2005), 205-208.

로기 이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새 창조와 회복의 모습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6) 신인식론적 대전환

⁹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וַיִּבֶן פַּנְאֵב)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¹⁰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וְרוּחַ קְדוֹשׁ)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¹¹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וְרוּחַ קְדוֹשׁ) 루아흐 카드쇼)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¹⁴여호와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사 63:9-14)

이사야 63장 10-11절은 예언서 중에 유일하게, 성령(=성신)이라는 귀에 익은 표현을 그대로 담고 있는 구절이다. 하나님의 영은 가장 극적인 의미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영의 신인식론에 있어서의 대전환(大轉換)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하나로,³⁷⁾ 이는 시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를 통해서도 자주 나타난다(시 13:1; 27:8-9; 30:7; 42:2; 44:23-24; 80:19; 88:14).³⁸⁾ 여기서 영과 얼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용례는 포로기 이후의 문헌에서 빈번히 등장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37)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사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곧 그의 임재를 뜻하며 신명기 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그의 얼굴로써 인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다(출 33:15; 참조 신 4:37). 박준서, 『구약세계의 이해』(서울: 한울출판사, 2001), 262.

38) 박준서, 『앞글』, 263-4.

가며 주의 앞에서(קִדְמוֹתַי 미과네카) 어디로 피하리이까”(시 139:7)처럼 영과 얼굴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다. 비록 이와 같은 본문들에서 영이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된다. “나를 주 앞에서(קִדְמוֹתַי 밀르과네카)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시 51:11[MT, 51:13])에서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의 그의 현현과 더불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 63장에서 얼굴과 함께 등장하는 영은 비단 하나님의 임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자체에까지 확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의 성령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이끄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현묘사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인식되었던 데에 반해, 이제는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신약성서 요한복음 2장 24절 등에서 하나님을 영과 동일시하는 데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3. 나오는 말

루아흐의 일차적인 의미는 고대 근동의 다른 언어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연론적인 의미의 바람이고, 사람의 마음 등을 말하는 인간론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힘으로서의 신(神)인식론적인 의미는 구약성서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다. 특히 예언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의 한 방법이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영이 등장하지 않고, 영이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법궤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성전이 존재하던 주전 8-7세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반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을 언급한다. 이

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임재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법궤와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의 가시적 상징이라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이름, 영광, 얼굴, 손 등과 같이 비가시적인 하나님 임재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포로기 이후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 이방에까지 확산됨을 인식한 신학적 사고의 전환 중 하나로 보편주의가 탄생하고, 이스라엘 신앙의 형태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 특정 장소에 국한되어 예배하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안식일 준수, 할례, 금식, 기도생활과 같은 개인주의 사상을 불러일으켰고, 주전 515년 제2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중요시되는 신앙생활을 형성시켰다. 이와 같은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포로기 이후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내적, 개인적이며 전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는 성전에서 수행되던 공적인 제의의 단절로 인해, 개인의 내적 생활의 발전을 더욱 강조하게끔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포로기 이후에 소망하던 새 시대 새 백성의 모습이다. 특히 제2이사야는 종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과 공의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 통해 윤리적 변화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영과 연관된 포로기 이후의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의 약속과 성취의 일변도적인 신구약의 연속성만을 드러내기 이전에, 이미 구약성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종교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에스겔은 단순히 생기를 통한 피조물의 생명 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선포하고, '생명의 호흡'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말한다. 성전의 파괴와 왕국의 멸망과 함께 황폐해진 도시와 성읍들이 새로 건축되며, 황무지가 에덴동산으로 변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 도래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던 것이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본토와 민족의 회복이라는 사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미를 제시한다. 창조기사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루아흐 아웨 임재의 약속이 ‘마른 뼈’, ‘갈한 자’, ‘마른 땅’과 같이 소망이 사라진 현실을 회복시키고, 영적 차원을 넘어서 민족과 고토, 자연에까지 확장되며, 이스라엘의 새 창조의 힘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영을 희망하고, 이 희망은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통해 열방에까지 확장된 우주적인 구원에까지 나아간다. 또한 에스겔은 바벨론과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는 엑스터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전통적 임재의 상징이던 성전의 회복을 연관지으며, 학개와 스가라는 성전의 재건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회복의 필요한 요소로 하나님의 영을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의 성전회복에 대한 소망이 무너진 성전의 회복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웨께서 포로기와 함께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바벨론으로 떠났다가 포로 이후시대에 돌아오셨다고 인식하며, 제2성전이 다시금 임재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것을 그려냈다. 이를 통해 포로기 이후의 편집자는 성전의 재건이 마무리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 임재의 또 다른 상징으로서의 영이 임재한 사람과 옛 상징의 결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사야 63장의 **יְהוָה מְלֵאכֵי**(루아흐 카드쇼/성령)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강조가 하나님의 현현묘사까지 나아간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통한 존재 자체에까지 확장되는 점에서 신인식론적인 대전환(大轉換)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도 다양성과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김정우, “이사야서의 성령론”, 「신학지남」 262호 (2000), 117-145.
- 김지은, “페르시아 시대 이스라엘의 사회-종교 변화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3집 (2002), 57-72.
- 김지은, 「포로와 토지소유」(서울: 한들출판사, 2005).
- 박준서, 「구약세계의 이해」(서울: 한들출판사, 2001).
- 이사야, “사사시대와 사사기의 하나님 임재 상징”, 「종교연구」 58집 (2010), 275-300.
- 이사야, “야훼 임재의 상징과 영”, 「구약논단」 30집 (2008), 185-198.
- 이사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 그리고 종교양태의 변화”, 「기독교사회윤리」 28집 (2014), 165-192.
- 이학재,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 차준희, “예언과 영: ‘문서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5집 (1998), 52-83.
- 차준희, “구약에 나타난 창조의 영”, 「구약논단」 55집 (2015), 185-211.
- 천사무엘, “구약성서와 하나님의 영”, 「제102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6), 207-216.
- 한동구, “구약성서의 성령론: 하나님의 영의 존재론적 성격의 변화”, 「제102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6), 13-24.
- 한사무엘, “사무엘서에 나타난 야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의미”, 「구약논단」 51집 (2016), 137-163.
- Becker, J. *Messianic Expectation in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 Block, D. I. “The Prophet of the Spirit: The Use of RWH

- in the Book of Ezekiel”, *JETS* 32:1 (1989), 27-49.
- Block, D. I.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7).
- Block, D. I.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25-48* (Grand Rapids: W.B.Eerdmans, 1998).
- Duhm, B. *Das Buch Jesaja, Übersetz und erkärt*, HKAT 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02).
- Hakjae, L. *A Rhetorical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רִיחַ in Ezekiel 37:1-14* (US: The University of Stellenbosch, 1999).
- Hanson, P. D. *Isaiah 40-66,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5).
- Hildebrandt, W.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5).
- Montague, G. T. *The Holy Spirit: Growth of a Biblical Tradition* (New York: Paulist, 1976).
- Neve, L.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okyo: Seibunsha, 1972).
- Skilba, R. J. “Until the Spirit from on High is poured out on Us’ (Isa32:15): Reflections on the Role of the Spirit in the Exil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6 (1984), 1-17.
- Smart, J. *History and Theology in Second Isaiah: A Commentary on Isaiah 35, 40-66* (Philadelphia: Westminster, 1965).
- 바이저, A./K. 엘리거, 「호세아/요엘/아모스/즈가리아」국제성서주석 25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2). 원제는 Weiser, Artur/Karl Elliger, Hosea Joel Amos Sacharja (Göttingen : Vand-

hoeck und Ruprecht, 1985).

Wilson, A. *The Nations in Deutero-isaiah: A Study of Composition and Structure* (Lewiston: Edwin Mellen, 1986).

Wonsuk, M. *The Spirit of God in the Book of Isaiah & its Eschatological Significance* (US: UMI, 1996).

검색어

하나님의 영

이사야

에스겔

성전

신인식

God's Spirit and God-recognition: Focusing on Isaiah and Ezekiel

Sa-ya Lee,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Studies on the theme of רוּחַ or the Holy Spirit are rare in comparison with other theological themes in the Old Testament. In fact, the direct expression the Holy Spirit occurs only three times in the Old Testament (Ps 51:13; Isa 63:10, 11). The books of the Prophets,

www.kci.go.kr

however, mention God's Spirit of theo-epistemological meaning sixty-five times. The epistemological meaning of God's Spirit and power is a unique expression which can not be found in the other ancient Near Eastern texts except the Old Testament. Especially, God's Spirit that the prophets mention was a way of God's pres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clear theological features by interpreting God's Spirit texts in the Prophets, especially of the exilic and post-exilic period, to prove the fact that רִיחַ is one of the theological key words in the Old Testament, and thu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udies on the Holy Spirit in the Old Testament.

God's creation and re-creation, Israel's restoration, God's supremacy, universalism on the recognition of God, changes of individual religious life are important theological characteristics closely related to God's Spirit in the Prophets. Ezekiel did not say merely creatures' receiving life through life-giving spirit, but the restoration of Israel as a whole, their restoration and new creation through God's Spirit as the breath of life (Ezek 37), and thus he challenged Israel's internal, ethical change. Isaiah also presented the wider meaning of the fact that new life-giving was not restricted to creatures of nature but the restoration of their own land and nation through Israel upon whom God's Spirit pours down (Isa 40:12-14; 44:1-5, etc.). And there appeared the integration of the oil pouring and the presence of ruach YHWH. That is to say, the selection of YHWH through oil-pouring was replaced by the pouring of ruach YHWH. Shem YHWH, kabod YHWH, and yad YHWH support His presence (Isa 59:19; Ezek 3:12,14; 43:5, etc.). These are the alternatives of the ark which was traditional symbol of God's presence. Ezekiel and Haggai said about

God's Spirit as the sine qua non of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and the restored community. Especially קָדְשׁוֹ רִיחַ (Isa 63:10,11), which has started from the emphasis on God's holiness, became the expression of God's presence itself (not as a symbol) and it could be the great theo-epistemological transition in that the recognition of God's Spirit extended from the power agent of YHWH even to His existence itself through His own manifestation. Just like in regard to the recognition of God, we can identify the diversity of the recognition of God's Spirit and even its changes in the Prophets.

Keywords

God's Spirit

Isaiah

Ezekiel

Temple

God-recognition

■ 투고일: 2016년 10월 15일

■ 심사일: 2016년 10월 19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3일